

예향이 만난 사람들

시대가 사랑한 거장들, 그들의 신념이 전해준 묵직한 울림

김대중 전 대통령·황영성 화백
임권택 감독·윤공희 대주교 등
예술가·명사들의 생생한 목소리
한국문화예술 아카이브 역할 특독

◇영화 거장이 독자에게 전하는 '떨림과 울림' = "좋은 작품이란 그나라의 토양에서 그나라의 정서나 미적세계가 확실하다든지 메시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국인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 우리의 토양과 정서, 생활을 담고 강조한 우리 색깔의 영화를 만들어야 외국에 나가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장성출신 임권택 감독은 '예향' 1989년 10월호를 통해 화두(話頭)로 품고 있던 '우리 색깔의 영화'에 대해 밝혔다. 이후 '씨받이'(1986년)와 '아재야제 바라야제'(1989년), '개벽'(1991년), '서편제'(1993년), '태백산맥'(1994년) 등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취화선'(2002년)으로 55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인생의 전부를 영화에 걸었던 노장은 '예향' 인터뷰(2016년 6월호)를 통해 "이렇게 (영화를) 오래하다 보니까 인생이 녹아서 영화가 되고 또 영화가 녹아서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답하게 말했다.

'예향'은 40년 동안 매달 수많은 사회명사와 아티스트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인터뷰이들은 우직하게 한길을 걸은 자신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꾸밈없이 들려주었다. 작자도 기록된 그들의 생생한 육성(肉聲)은 소중한 한국문화예술 아카이브(Archive·기록보관소) 역할을 톡톡히 한다.

◇윤공희 대주교 등 사회명사 메시지 전달=1984년 10월 '문화예술 종합 교양지'를 표방하며 출범한 '예향'은 '만나고 싶었습니다'와 특별 대담 등을 통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윤공희 대주교(1985년 1월호)와 이한기 전 감사위원장(1985년 2월호), 윤관 대법관(1990년 2월호),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1994년 1월호) 등 사회명사 인터뷰에는 오늘날에도 공감하고 귀담을 들을 만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올해 백수(白壽·100살)를 맞은 윤공희(빅토리노) 대주교는 1985년 1월호 인터뷰에서 '갈수록 메달라 가는 시대에 종교인의 참다운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신적 가치'와 '정의'를 강조한다.

"우리의 현실은 물질적 풍요 추구에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조건은 경제도 필요하지만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



민주주의와 통일과 아시아 민주화와 세계평화에 헌신하겠다.
나는 내가 헌신하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역사의 창조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의를 말하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송기숙 작가·김지하 시인 등 창작의 산실(産室) 찾아=수많은 소설가와 시인, 문학평론가들이 '이달에 만난 사람'과 '창작의 방', '예향 초대석' 코너를 통해 소개됐다. 올해로 등단 58년을 맞은 한승원 작가(2021년 7월호)는 "나는 살아있는 한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에서 1980년 5월 광주 소식을 전해 들었던 작가는 한동안 글을 쓰지 못하다가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영혼의 자서전' 등을 읽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밝힌다. 김지하(1941-2022) 시인은 창간호와 1999년 10월호에서 강원도 원주



생활과 울려(律呂)운동, 출판계획에 대해 밝혔다. 시인은 '너무 앞질러 가고 시에서 욕을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그게 어디 욕입니까? 하나의 문법 아닙니까?"라고 반박한다. 1989-1990년 '예향'에 '갯나루' 시리즈를 연재했던 광재 구 시인(2021년 4월호)은 하루 24시간, 8만6400초를 오롯이 시에 바친다. 시인은 "내 삶의 발은 두 개인데 한발은 시고 한발은 여행"이라며 "한발로 걸어가고, 한발로 시 쓰고 이것이 내 삶이죠"라고 말한다.

평생동안 한길을 걸으며 예술가들과 노장 철학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독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2016년 2월호)는 최근 에세이 '100세 철학자의 사랑수업'(열림원)을 펴내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정신적으로는 상류층,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으로 살자"며 "정신적인 행복감과 인문학적 사유를 강조한다."

"인문학이 사유가 없다면 사람들은 선입관에 빠지고, 고정관념에 빠지고, 절대주의에 빠져 역사를 비극으로 만들어요."

◇클래식과 국악·회화...영원한 예술인생="우리도 평범한 부부예요. 둘 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그러합니다. 다만 서로의 영역을 진심으로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백건우·윤정희(1944-2023) 부부는 '특별 인터뷰'(1994년 1월호)에서 부부 금실을 보여준다. 1960년대 남정민·문희와 더불어 '트로이카'로 불렸던 윤정희는 부산 태생이지만 부친을 따라 광주에 온 후 전남여중·고를 나와 광주와도 인연이 깊다. '신이 내린 춤꾼' 이매방(1927-2015) 선생(2014년 11월호)은 몸짓이 아니라 몸에서 마음이 우리나라의 심무(心舞)를 최고로 친다.

"마음이 고와야 춤도 고운 법이요. 한국 춤의 아름다운 정중동(靜中動)이 있어, 우리 몸에서 배꼽이 중(中)이지. 배꼽 밑은 정(靜)이고 위는 동(動)이야. 한국 전통춤의 멋은 기와 지붕이나 한복

"그렇게 문학이 무력할 수가 없어 못 쓰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만났어요. '한심한 영혼아, 너는 고기와 포도주와 빵을 사먹는 것이 아니고, 흰 종이에 빵, 고기, 포도주라고 쓰고 그 종이를 먹는구나' 하는 그의 말이 '소설가는 소설로 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었죠."

한승원 작가

의 선처럼 곡선의 아름다움이지."

한국 현대미술 단색화 거장 박서보(1931 ~ 2023) 화백을 인터뷰(2022년 7월호)한 때는 타계하기 1년 4개월여 전이었다. 기지재단 전시 공간에서 새가 날아와 쪼아 먹은 단풍색 작품 등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예술가는 남과 달라야 한다. 선생도, 친구도 닮으면 안 되고 역사에도 빛지면 안 된다."

단색화 거장은 평생 염두에 둔 "변화하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러나 변해도 추락한다"는 문구를 모비에 새겼다.

황영성 화백(2023년 12월호)은 지난해 겨울 전



"우리도 평범한 부부예요. 둘 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그러합니다. 다만 서로의 영역을 진심으로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피아니스트 백건우·영화배우 윤정희 부부

남도림미술관에서 초대전 '우주가족 이야기'를 개최했다. 평생 동안 '가족'이라는 주제에 천착(穿鑿)해온 60년 화업(畫業)을 되돌아보는 전시였다.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남으로 내려와 광주에 정착한 원로 화가는 '가족이야기'에 몰두하는 까닭을 이렇게 밝힌다.

"나는 가족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의 작업의 주제도 가족이야기다. 그 이야기의 그림을 근 30여 년 그려온 것 같다. 처음에 가족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리움이었던 것 같다. 전쟁과 가난이 빼앗아간 나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런 그리움이였다."

/글=송기숙 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나는 가족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의 작업의 주제도 가족이야기다. 그 이야기의 그림을 근 30여 년 그려온 것 같다. 처음에 가족에 대한 나의 인식은 그리움이었던 것 같다. 전쟁과 가난이 빼앗아간 나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그런 그리움이였다"

황영성 화백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건명: 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약 165,963㎥(자연상태 모암 기준)
현, 현상 사정에 따라 전체 수량이 변경(증,감) 될 수 있음.

구분	단위	토사	종량	연보양량	경량	합계	비고
수량	m ³	-	-	165,963	165,963	331,926	무단리탈

2. **현장설명회,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주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 현정사무실)**
가. 현 장 설 명 회: 2024년 10월 09일 14:00
나. 입찰등록마감일: 2024년 10월 10일 14:00
다. 개 청 일 시: 2024년 10월 10일 14:10
라. 낙찰자 선정: 2024년 10월 11일 (낙찰자 개별통보)

3. **입찰방법: 일괄 매각 입찰**
가. 낙찰자 결정: 공개경쟁입찰, 단가입찰(1㎡당), 최고가 낙찰제
입찰자가 제시한 1㎡당 원석대가 최고인 업체를 낙찰(예정자)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가격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계약대리인의 운반거리 선정 방법에 의함)
* 설계운반거리(L=2.9km)를 초과하는 추가운반비용은 입찰자가 시행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입찰 참가 자격**
가. 임의계약의 경우
1) 입찰공고일 현재 공제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산회채취취업 또는 공제선별 파세업으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사업자로서, 현상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만입장을 구비해 심사받입(24시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회 제출하여야 한다.(의착장 및 공제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처리 가능 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일 1,600㎡ 이상, 월 35,000㎡ 이상 발생암 반입이 가능한 자
나. 공제사항
1)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장설명 시 국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의착장 및 공제 생산시설)은 벌과금, 민원, 공제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벌과금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 **입찰업체 제출서류(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
가. 법인입(공제생산시설 및 의착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1부
나. 공제 선별 파세업 사업자 등록증 및 공제 파세 신고수리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증 1부
라. 시·군·구 인감증명서 1부
마. 위임장(대리인 참석서) 및 재직증명서 1부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회,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원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금 미납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처(현장설명 가능)
· 매 각 자: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 계약대리인: (주)태영건설 (전남 무안군 칠계면 서로358)
· 기 타 문 의: 시공사 (주)태영건설 061-454-5557
관리대 (주)에이알티 061-454-5509

2024년 10월 8일
호남고속철도2단계(고막원~포포) 제5공구 건설공사
계약대리인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로·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력,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요거리→무등산방향 후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先州日報

지역안내

· 동 경 265-1920 · 문 265-1990 · 북 경 525-3761
· 신 경 222-8171 · 영 신 571-7858 · 오 지 266-7601
· 용 경 453-1530 · 호 신 433-1933

· 남 경 673-9836 · 동 경 222-9354 · 서 부 225-6001
· 용 경 222-9254 · 용 경 222-8171

· 남 부 673-9836 · 동 경 651-1933 · 동 경 673-9836
· 용 경 675-6605 · 동 경 671-7276

· 경 원 382-6788 · 상 경 372-2352 · 서 경 309-1625
· 용 경 376-7153 · 동 경 376-6511 · 동 경 603-0311
· 화 경 369-1625

· 용 남 952-1887 · 월 경 959-1920 · 청 원 973-2900
· 화 남 955-0451 · 동 신 944-0444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칼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처방전 400건,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유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지역, 내과(의사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8.13%)

매매가 78억 은행 42억 5천 / 보9억 4천 포함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